



세계정당연대의 원상적인 공조로써 양상을 기대합니다.

**임핑 나이너스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로 관통
- (광명동원로IC 영수순 10분내 개시)
- 우천시 9월 이후 불법요양정선제 실시
- 예약 : www.hpdyunashy.co.kr 0801 320-7700

# “4회 연속 출전... 유종의 미 거뒀야죠”



## 메달 기대주

### ⑫ 테니스 이형택

이형택(32·삼성증권)은 여러 모로 한국 테니스에 선구자와 같은 존재다.

2000년 US오픈에서 단식 16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던 이형택은 이후 2003년에는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 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2007년에는 랭킹 36위까지 오르는 등 그야말로 한국 테니스 역사의 페이지를 무수히 장식했다.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다. 1996년 애틀랜타 대회에 윤용일 현 코치와 한 조로 복식에 처음 출전했던 이형택은 이후 2004년 아테네까지 빠짐없이 올림픽 무대를 밟아왔다.

이번 베이징올림픽에도 나가게 된 이형택은 4회

연속 올림픽 출전이라는 힘든 업적을 이루게 됐다. 5살이나 어린 로저 페더러(27·스위스)가 어 느덧 노장 소리를 들어가는 현실에서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이형택의 선전은 아무리 칭찬을 해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특히 이번 베이징올림픽은 자력으로 출전권을 따낸 것이라 더 의미가 크다. 출전 자격이 결정될 당시 세계 55위였던 이형택은 여유있게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이전까지는 자력으로 따내지 못하고 대륙별 안배에 의한 와일드카드로 올림픽에 나갔었다.

최근 이형택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코트에서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원래는 8월 말 열리는 US오픈

을 앞두고 북미 지역에서 열리는 US오픈 시리즈에 출전하다가 베이징으로 날아올 예정이었지만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 계획을 변경했다.

6월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린 투어 대회 경기 도중 다친 무릎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형택은 “80에서 90%까지는 회복된 것 같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고 경기를 할 정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회 출전보다 훈련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몸 상태는 완벽하지 않지만 아직 2주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욕심까지 접을 수는 없다.

이형택은 “정상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세우기 보다는 다치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올림픽 최고 성적이 1회전 통과였으니까 그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기다 보면 상상을 타게 된다”고 각오를 밝혔다.

‘선구자’로서 이후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본인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밝힌 만큼 2012년 런던 올림픽 테니스 종목에 다른 한국 선수가 나갈 수 있을지 전망이 어두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베이징과는 인연이 좋은 편이다. 2006년 베이징에서 열린 투어 대회에서 당시 세계 3위였던 이반 류비치치(크로아티아)를 8강에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고 지난 해 같은 대회에서도 8강까지 올랐다.

이번이 많은 올림픽 특성 상 대진 운과 그날 컨디션만 좀 따라준다면 이형택이 일을 내지 말란 법도 없다. 이형택은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올림픽 이후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도전하겠다”며 베이징 출사표를 던졌다. /연합뉴스

## ■ 박성화호 합류한 ‘말형’ 김동진·김정우

# 후배들과 ‘손발 척척’ 올림픽 첫 메달 자신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 남자축구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노리는 박성화호에 24세 이상 와일드카드로 합류한 김동진(26·제니트)-김정우(26·성남)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와일드카드는 세 명까지 쓸 수 있다. 하지만 박성화 감독은 각각 수비와 중원 보강을 위해 김동진, 김정우 둘만 선택했다.

김동진과 김정우는 2004 아테네올림픽 8강 멤버다. 현 대표팀 중 2회 연속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는 선수는 둘 뿐이다.

아테네 대회 때 김동진은 그리스와 조별 리그 1차전(2-2 무승부), 김정우는 멕시코와 2차전(1-0 승)에서 골 맛까지 보면서 8강행에 밀거름이 됐다.

4년 전 쟁쟁한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

던 둘은 이제 팀의 말형으로 다시 올림픽에 참가한다.

역대 종합대회에서 와일드카드가 기대만큼 팀에 큰 힘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 때문인지 김동진과 김정우의 어깨는 무겁다. 하지만 이들의 기량과 경험은 박성화호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기에 충분하다.

김정우는 지난 7일 대표팀 소집 때부터 후배들과 함께 훈련했다. 러시아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동진은 최정연(18명)이 확정, 발표된 지난 21일부터 대표팀 훈련에 참가했다.

함께 호흡을 맞춘 시간은 넉넉지 않지만 갈수록 팀에 녹아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 무엇보다 긍정적이다.

박성화호는 27일 아프리카 신흥강호 코트



28일 오후 파주 NFC에서 열린 올림픽 축구대표팀 포토타이 행사에서 박성화 감독을 비롯한 선수단이 단체 촬영을 하기 위해 포즈를 취하다 웃고 있다. /연합뉴스

디부아르와 친선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뒀다.

와일드카드까지 합류한 정예 멤버로 치른 첫 평가전이였다. 김동진은 왼쪽 풀백으로 풀타임을 뛰었고, 김정우는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경기 종료 직전인 후반 45분 교체됐다.

김동진은 포백 수비라인을 이끌면서 활발한 오프백으로 공격에 적극 가담하며 날카로운 크로스로 이근호(대구)의 결승골까지 도왔다.

강영철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은 “김동진이 들어오면서 왼쪽 공격 옵션이 다양해졌다”고 평가했다.

막내 기성용(서울)과 중원에서 호흡을 맞춘 김정우는 상대 포백 수비라인을 흐트러뜨릴 수 있도록 좌·우 공간으로 전개하는 패스 연결이 보기 좋았다.

공격형 미드필더도 소화 가능한 김정우이지만 이날은 4-4-2 포메이션에서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아 상대 공격을 저지하고 압박하는 수비 임무에 더 주력했다.

박성화 감독은 28일 파주NFC에서 대표팀의 회복훈련을 이끈 뒤 “와일드카드 선수들은 잘 하고 있다”면서 “김동진은 팀 합류 후 첫 경기였는데 전술적인 흐름을 무리없이 소화했다. 기동력을 살려 도움까지 올렸다”고 칭찬했다.

## 올림픽 소식

# 한국어, 올림픽 첫 공식 통역언어로

### 프레스센터에 한국어 통역 4명

○한국어가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역대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공식 통역 언어로 채택.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BOCOG)는 28일 메인프레스센터(MPC)와 국제방송센터(IBC)에서 한국어 통역 지원을 하기로 발표했다. 따라서 한국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러시아어, 일본어와 함께 9개 통역 언어로 결정.

MPC에는 한국어 통역 요원 4명이 배치됐고 이들은 교대로 돌아가며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남북 선수단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때도 통역 요원을 배치.

### 가장 보고 싶은 경기 ‘박태환 수영’

○한국 네티즌들은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가장 보고 싶은 경기가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이 출전하는 수영. 야후 코리아가 23일부터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베이징 올림픽 이 경기만은 꼭 본다’는 질문에 671명의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359명(54%)이 박태환의 수영을 선택. 여자 핸드볼을 반드시 지켜보겠다고 한 응답자가 91명으

로 두번째로 많았고 인기 종목인 야구(83명)와 축구(79명)는 3, 4위. 가장 많은 메달을 휩쓸 것 같은 종목으로는 전체 518명 가운데 75%인 390명이 양궁이라고 답해 태권도(100명)를 압도.

### 승용차 번호판 끝자리 수 날만 운행

○중국 수도 베이징에선 조만간 승용차가 열흘에 하루만 운행하도록 제한되는 전격적인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베이징 당국은 베이징올림픽 개막이 11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도가 맑은 공기의 기준을 벗어나자 승용차 운행을 대폭 제한하는 것을 비롯한 비상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28일 보도. 비상대책의 골자는 시내 승용차에 대해 번호판 끝자리 수의 날에만 운행을 허용한다는 것. 역 10부제로 승용차는 열흘에 하루만 운행.

### 한국 176번째, 북한 177번째 입장

○2008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한국은 전체 204개 국가와 지역 중 176번째로 북한은 177번째로 잇따라 입장하게 됐지만 같은 유니폼을 입고 동시 입장과 같은 분위기를



2008베이징올림픽 개막을 10여일 앞둔 28일 올림픽선수촌의 국기 게양대에 태극기와 북한 인공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연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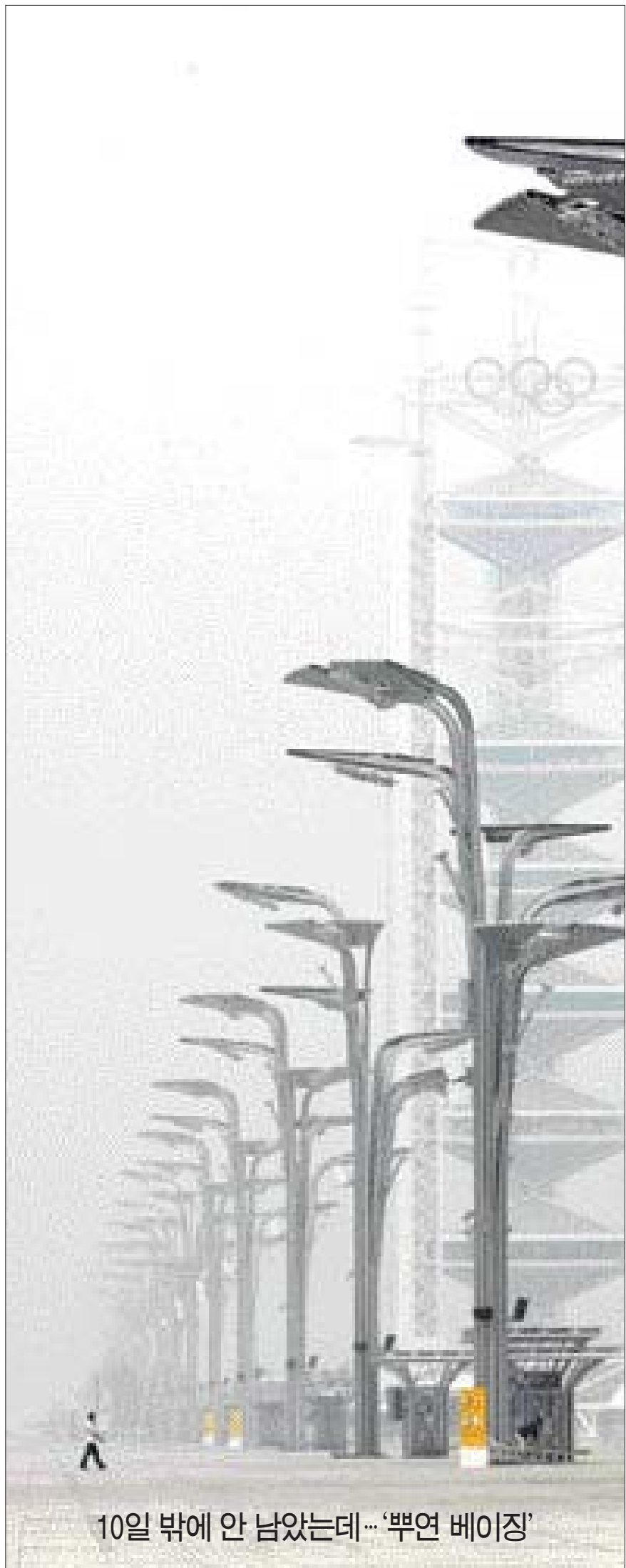
대한올림픽위원회 정홍용 선수단 연락관은 28일 “베이징 올림픽조직위원회가 각국의 입장순서를 간체자 확산에 따라 결정할 결과 한국은 176번째로 북한은 177번째로 입장하게 됐다”고 전했다.

### 장미란 체중 조절 안간힘

○여자역도 간판 장미란(25·고양시청)이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한 체중조절에 안간힘.

최대 라이벌 무상상(24·중국)의 불참이 확정되면서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는 장미란은 베이징올림픽 최종합류(+75kg) 출전을 앞두고 현재 몸무게를 118.3kg까지 조정.

힘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도에서 더 나은 체격조건을 만들기 위해 올해 초 몸무게 113~114kg에서 4~5kg 정도를 더 쪼은 것. 118kg 안팎이 올림픽을 코 앞에 두고 전략적으로 설정한 체중이라는 설명.



10일 밖에 안 남았는데... ‘뿌연 베이징’

28일 대기오염으로 시야가 흐려진 베이징 올림픽 공인 ‘올림픽 그린’의 올림픽 스튜디오 타워 모습. 베이징 당국은 2008 베이징 올림픽 대회기간중 공기의 질이 계속 문제가 될 경우 도로상 주행 차량 대수 추가 제한, 공장 추가 폐쇄 등 기존의 급격한 대기오염 감축방안을 확대 실시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관영매체가 2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